

2016 화재현황 분석보고

□ 화재건수 : **192건**

▶ 2015년 대비 : 17건 증가(△9.7%)

□ 인명피해 : **5명(부상 5)**

▶ 2015년 대비 : 1건 감소(▽16.7%)

□ 재산피해 : **1,379백만원**

▶ 2015년 대비 : 135백만원 감소(▽8.9%)

*1개월 평균 : 화재 16.0건, 인명피해 0.4명, 재산피해 115백만원

군포소방서
[현장대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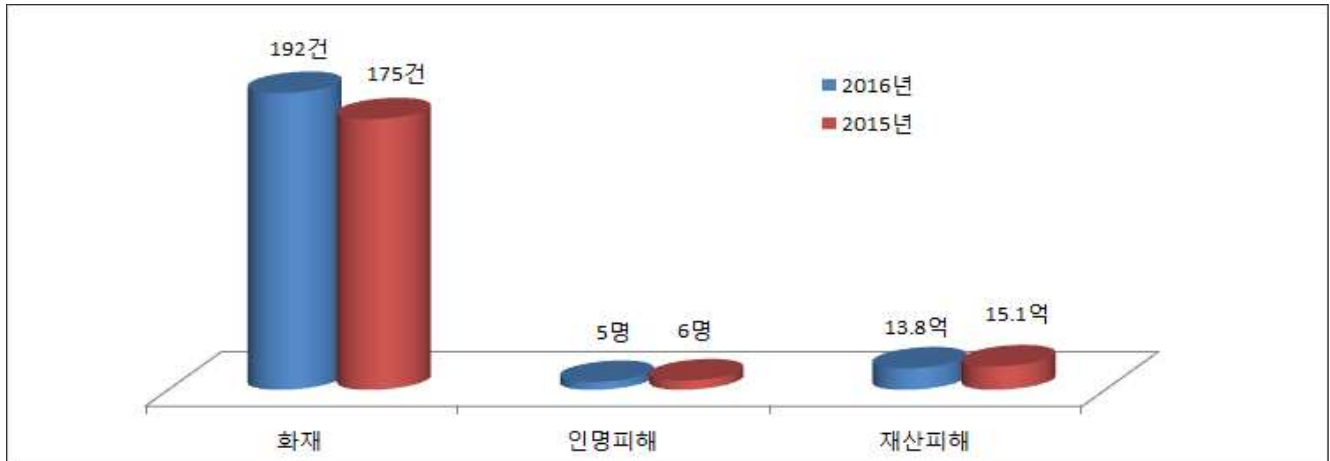
목 차

I. 2016 화재발생 현황 분석	1
II. 화재통계별 세부현황	
1. 총괄	3
2. 동별(법정) 화재발생 현황	6
3. 부주의화재 현황	9
4. 화재장소별	12
5. 발화요인별	13
6. 발화열원별	14
7. 인명피해분석(발화요인 및 장소별)	15
8. 재산피해분석(발화요인별)	17
7. 재산피해분석(발화장소별)	18
10. 월별 화재현황	19
11. 안전센터별 발생현황	20
12. 소방관서별 화재통계	21
13. 시·도별 화재통계	22

I. 2016 화재발생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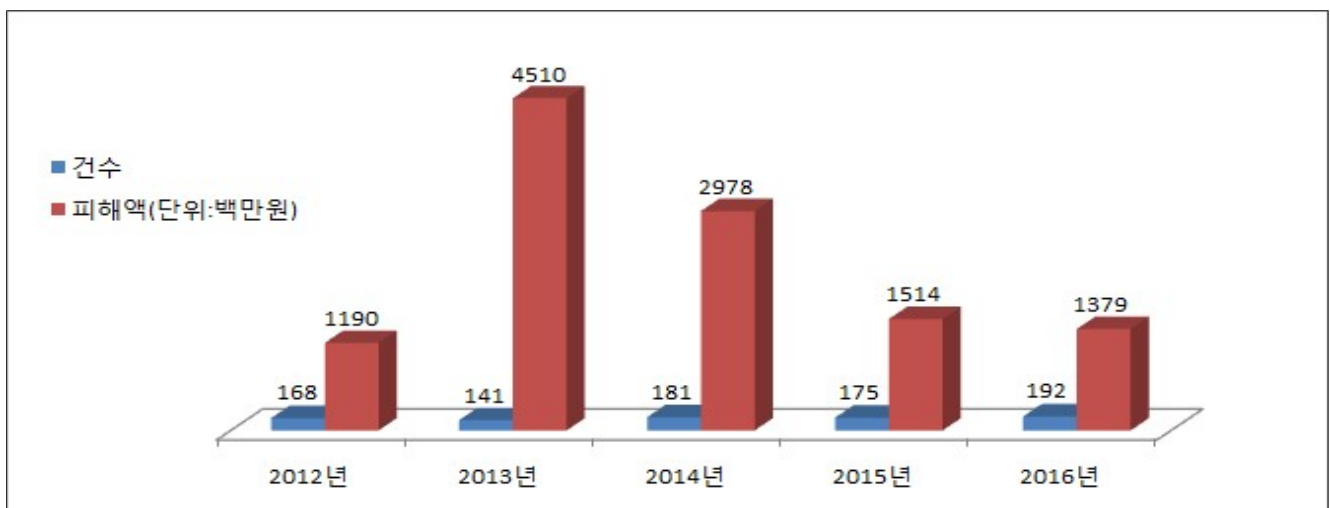
□ 화재건수 및 피해 현황

- 화재 192건 / 인명피해 5명(부상 5) / 재산피해 1,379백만원
 - 2015년 대비 17건 증가(9.7%) / 인명피해 부상 5명 발생(△20.0%)



□ 인명·재산피해 현황

- 인명피해 : 5명 (△16.7%)
 - 화재 자체진화 시도 중 부상자 5명(경상) 발생
 - 안전장구 및 자체진화 요령 등 홍보 강화 필요
 - 재산피해 : 1,379백만원 (△8.9%)
 - 부동산 335백만원, 동산 1,044백만원
 - 화재건수가 증가하였으나 대형화재 예방으로 피해액 감소
- ※ 2014년 군포복합물류(2,247백만원)
2015년 남륜하이테크(980백만원)



□ 전국 / 도내 전년도 화재 대비 발생현황

- 전국 43,412건(1,023건 감소, △2.3%) / 경기도 10,147건(186건 감소, △1.8%) / 군포 192건(17건 증가, 9.7%)
- 전국·경기도 화재발생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군포는 증가

□ 발화 요인별

- 부주의 106건(55.2%) / 전기적요인 42건(21.9%) / 기계적요인 28건(14.6%) / 미상 6건(3.1%) / 화학적요인 4건(2.1%) 순임.
- 전체 화재 중 부주의가 가장 큰 비중(55.2%)을 차지하며, 기계적요인의 증가율(13건, 86.7%)이 두드러지고 나머지 요인은 전년과 비슷함.
- ※ 부주의 주요 내용 중 담뱃불(38) 및 음식물(34)이 전체 부주의 화재의 67.9%로 지속적인 홍보 및 안전시설 점검 필요

□ 발화 장소별

- 주거 74건(38.5%), 비주거 69건(35.9%), 차량 24건(12.5%), 기타 25건(13%)
- 2015년 대비 : 주거, 비주거, 차량화재 증가 / 기타화재 감소
- ※ 비주거(생활서비스 24, 산업시설 24, 판매·업무 11, 기타서비스 5건 등)
- 주거(아파트 37, 연립·다세대·기타공동주택 21, 단독·기타주택 1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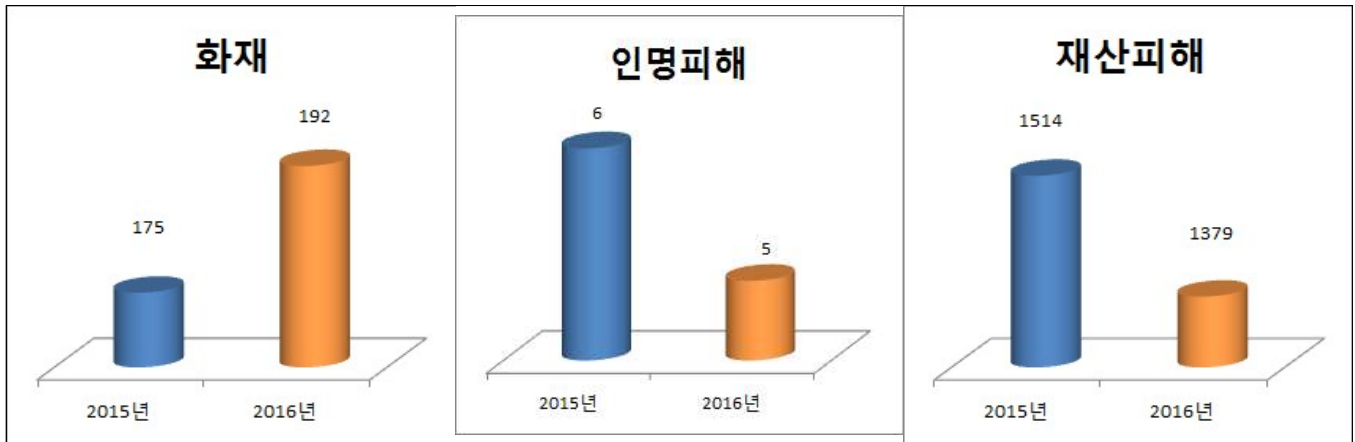
□ 재산피해 규모별

- 발화요인별 : 전기적요인 902백만원(65.4%) / 부주의 324백만원(23.5%) / 미상 107백만원(7.8%) / 기계적요인 42백만원(3.1%) / 화학적 요인 2백만원(0.2%) / 자연적 요인 1백만원(0.1%)
- 2015년 대비 : 전기 785백만원(677%) 및 부주의 80백만원(32.9%) 증가
- 발화 장소별 : 비주거 1,113백만원(80.8%) / 주거 109백만원(7.9%) / 차량 150백만원(10.9%) / 기타 6백만원(0.4%)
- 2015년 대비 : 차량화재 80백만원(114.6%) 증가, 비주거 및 주거, 기타화재 전체적 소폭 감소

II. 화재통계별 세부현황

1. 총괄

(단위 : 건/명/백만원)



연도별	구분	화재건수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2016		192	5	0	5	1,379
2015		175	6	0	6	1,514
누계 대비	건수	17	0	0	0	△135
	비율(%)	9.7	△20.0	0	△20.0	△8.9

- 2016년 화재는 총 192건, 인명피해 5명(부상 5), 재산피해 1,379백만원
 - 2015년 대비, 화재건수 17건 증가(9.7%), 인명피해 1건 감소(△20.0%), 재산피해 135백만원 감소(△8.9%)

- 전국과 경기도의 화재 발생은 43,412건과 10,147건으로 각각 1,023건(△2.3%), 186건(△1.8%) 감소
 - 군포 소방서는 17건 증가(△9.7%)하였으며, 재산 피해액은 1,379백만원 감소하여 전년대비 8.9%의 감소율을 나타냄.

- ※ 전국 369,696백만원(63,470백만원, 14.7%) 감소
 경기도 184,810백만원(55,526백만원, 23.1%) 감소

- 2015년 대비 발화 요인별로 분석해 보면 부주의 1건(△0.9%) 감소, 전기적요인 및 미상화재는 전년과 동일하고, 기계적요인 13건(86%) 증가하여, 기계적요인이 다른 요인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 화재피해액은 건수가 17건(9.7%)이 증가하였음에도 1,379백만원 발생하여 2015년 대비 135백만원(△8.9%) 소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5년도 남륜하이테크(공장) 화재시 980백만원('15년 화재의 64.8%)의 큰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금년도 단일건수 화재 중 가장 큰 피해액은 289백만원(전체의 20.9%)이 발생한 공장화재(㈜씨피티)로 피해규모가 적고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아 소폭 감소됨.
- 화재피해액 발생 상위 화재를 살펴보면 전체피해액의 88.6%(1,341백만원)를 상위 10건의 화재가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시설(공장)이 전체 피해액의 2/3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산업시설(공장) 1,027백만원(67.8%), 생활서비스(음식점,편의점) 171백만원(11.3%), 주거시설(아파트,주택) 59백만원(3.9%), 기타(야외 및 기타건축물) 47백만원(3.1%), 자동차 37백만원(2.4%)
- 처종별로 공장에서 큰 피해액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16년 화재 중 피해액 상위 순위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공장화재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 2016년 공장화재 총 19건(9.9%), 피해액 936백만원(67.9%)
- 2016년도 가장 많이 발생한 부주의(106건) 화재 중 대부분 음식물(38건) 및 담배꽂초(34건)가 부주의 전체 화재 건수의 67.9%이며 2015년와 비슷한 빈도를 보이나, 피해액은 1231.8% 대폭 상승하였는데, 이는 2015년도 대부분 피해액이 작은 화재였지만, 2016년도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주)씨피티 공장화재(289백만원)가 부주의 화재이기 때문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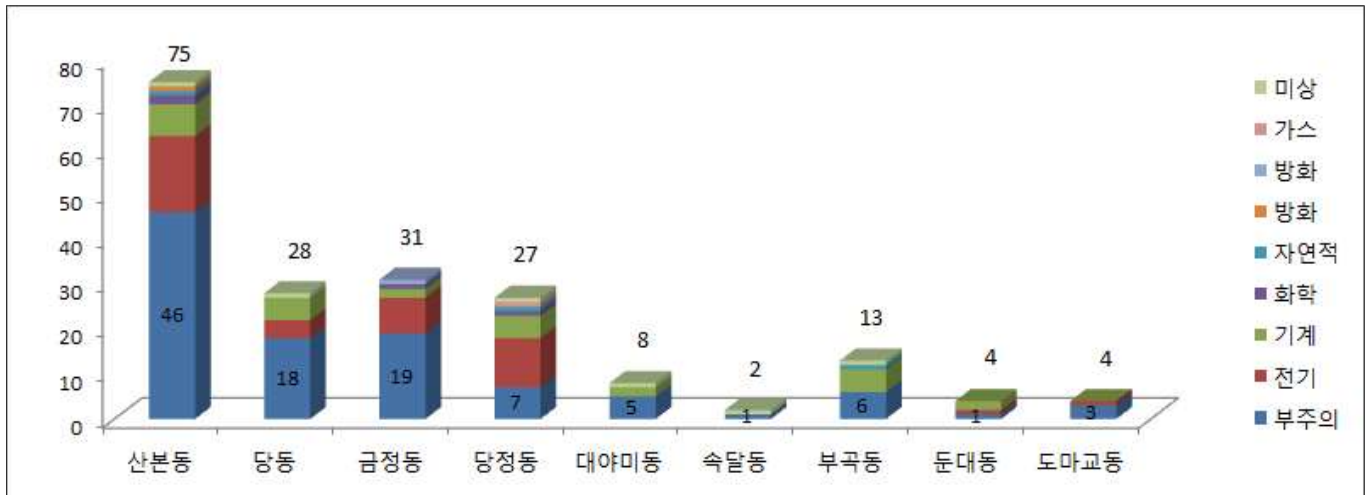
○ 화재피해액 증가율을 발화요인별로 살펴보면 부주의(32.9%) 및 전기적 요인(67.7%)은 크게 증가하였고, 기계적 요인은 13건(86.7%) 증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6.8% 감소하였으며, 원인미상(△90.1%)도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요인은 발생 건수가 적어서 증가율에 큰 의미가 없음.

※ 2015년 대비 부주의 80백만원(32.9%)증가, 전기적요인 786백만원(△67.7%), 기계적요인 243백만원(△36.8%), 인원미상 973백만원(△90.1%) 각각 감소함.

화재피해액 상위 대상(10개소)

순	일 시	대 상	주 소	처 종	피 해 액(천원)			발화 원인
					총 액	부동산	동 산	
1	2016-02-12 21:09	(주)***	당정동	공장	289,175	8,387	280,788	부주의
2	2016-12-26 07:48	*****	당정동	공장	226,894	19,768	207,126	전기적 요인
3	2016-05-19 14:24	(주)*****	당정동	공장	208,735	66,600	142,135	전기적 요인
4	2016-01-27 14:53	*****	당정동	공장	168,717	61,726	106,991	전기적 요인
5	2016-11-01 00:25	(주)***	당정동	업무시설	10,6451	33,255	73,196	전기적 요인
6	2016-07-28 01:05	승용차	대야미동 (수원광명고속도로)	자동차	66,261	0	66,261	미상
7	2016-12-05 04:52	****아파트	산본동	공동주택 (아파트)	44,396	22,333	22,063	전기적 요인
8	2016-10-21 04:30	****아파트	산본동	공동주택 (아파트)	41,107	36,849	4258	전기적 요인
9	2016-06-02 03:11	*****	당정동	공장	35,690	21,676	14,014	전기적 요인
10	2016-05-18 11:08	1톤 트럭	산본동 (외곽순환도로)	자동차	26,884	0	26,884	미상

2. 동별(법정) 화재발생 현황



법정동	건수	부주의	전기	기계	화학	자연	방화	방화 의심	가스 누출	미상	면적(m ²)	인구(명)
합계	192	106(55.2%)	43	14	1	1		2	1	6	36,459,850	287,519
산본동	75	46(61.3%)	17	7	2	1	1			1	8,824,291	127,843
당동	28	18(64.3%)	4	5						1	2,638,369	60,392
금정동	31	19(61.3%)	8	2	1			1			2,576,794	57,402
당정동	27	7(25.9%)	11	5	1	1			1	1	2,796,266	14,717
대야미동	8	5(62.5%)		2						1	2,777,805	9,331
속달동	2	1(50.0%)								1	5,880,022	337
부곡동	13	6(46.2%)		5		1				1	4,132,799	17,118
둔대동	4	1(25.0%)	1	2							4,884,431	319
도마교동	4	3(75.0%)	1								1,949,073	60

- 화재발생 빈도는 산본동 75건(39.1%), 금정동 31건(16.1%), 당동 28건(14.6%), 당정동 27건(14.1%), 부곡동 13건(6.8%) 순으로 발생함.
 - 산본동, 당동, 금정동, 당정동, 부곡동은 다른 동에 비하여 인구밀도가 높아 화재도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나, 당정동의 경우 부주의 화재보다 전기적 요인의 화재가 높게 나타남
- 인구대비 화재는 인구가 많을수록 화재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면적대비 화재발생빈도의 상관관계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 도마교동, 둔대동, 속달동은 녹지지역으로 농촌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군포시에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면적대비 인구밀도가 적고, 화재건수도 낮은 편임
- 요인별 화재발생 건수 중 부주의가 동별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당정동은 공장이 많아 부주의(7건)보다 전기적요인(11건)이 더 많이 발생함.
 - 부주의, 전기적요인, 기계적요인 등 3개 요인이 176건(91.7%) 차지함

○ 부주의 화재는 106건으로 전체화재의 55.2%을 차지하며, 동별 부주의 화재는 산본동 46건(61.3%), 당동 18건(64.3%), 금정동 19건(61.3%), 당정동 7건(25.9%), 대야미동 5건(62.5%), 속달동 1건(50%), 부곡동 6건(46.2%), 둔대동 1건(25%), 도마교동 3건(75%)이 발생함.

○ 산본동 화재발생 주요 요인은

- 부주의 화재 46건 중 담배꽂초가 16건, 음식물조리가 16건, 가연물 근접방치 5건, 화원방치 3건, 불장난 3건, 용접 2건, 기타 1건 순임.
- 담배꽂초가 원인이었던 장소는 주로 판매시설 및 생활서비스가 주를 이루며,
- 음식물조리 16건은 모두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으며, 그중 아파트가 8건, 다세대 4건, 다가구 3건, 상가주택 1건에서 일어난 것으로 분석됨.
- 전기적요인 17건 및 기계적요인 7건은 차량, 판매, 교육, 주거 등 다양하게 분포함.

○ 당동 화재발생 주요 요인은

- 부주의 18건 중 음식물조리가 8건으로 그 중 공동주택 4건, 단독주택 2건, 음식점 및 상점이 각각 1건으로 분석됨.
- 담배꽂초 6건은 주거시설 2건, 산업시설 2건, 근린생활시설 2건으로 분석됨.
- 전기적요인 4건은 주거 및 근생에서 발생했으며, 기계적요인 5건은 음식점, 공장, 자동차, 근생 등 다양하게 분포함.

○ 금정동 화재발생 주요 요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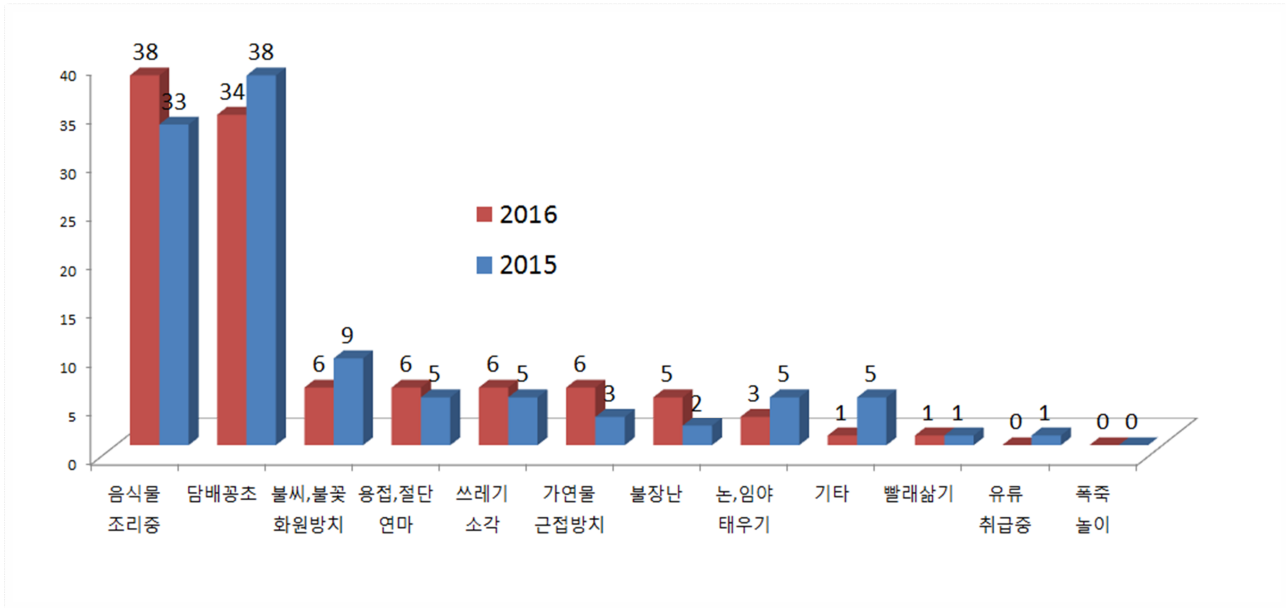
- 부주의 19건 중 음식물조리 9건 모두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담배꽂초 5건도 4건이 주택이며 1건은 야외로 분석되어, 주택 부주의 화재예방 홍보가 필요.
- 전기적요인 8건 중 공동주택 5건, 자동차 2건, 청소년시설 1건에서 발생함.

○ 당정동 화재발생 주요 요인은

- 전기적요인 11건 중 공장(창고 포함)이 7건, 음식점 2건, 차량 1건으로 공장의 비율이 높은 분포를 보임.
- 부주의 7건(25.9%)이 발생하여 타동에 비해 부주의 화재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데 이는 주택지역보다 공장지역이 많아 발생한 특이한 현상으로 파악됨.
- 부주의 원인 중 담배꽂초가 5건이며, 용접이 2건 발생함.

3. 부주의 화재 발생현황

(단위 : 건)



연도별	구분	계	담배공초	음식물 조리중	불씨, 불꽃 회원방치	용접, 절단, 연마	쓰레기 소각	가연물 근접방치	불장난	논, 임야 태우기	기타	빨래삶기	유류 취급중	폭죽 놀이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106	38	34	6	6	6	6	5	3	1	1	0	0
2015		107	33	38	9	5	5	3	2	5	5	1	1	0
전년 대비	건 수	△1	5	△4	△3	1	1	3	3	△2	△4	0	△1	0
	증감(%)	△0.9	15.2	△10.5	△33.3	20	20	100	150	△40	△80	0.0	△100	0

○ 부주의 화재 106건(55.2%)은 전국 및 타시도 대비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전국 43,412건 중 부주의 22,611건(52.1%) / 경기도 10,147건 중 부주의 4,765건(47.0%)

○ 발화요인별로 살펴보면 음식물과 담배공초가 72건(67.9%)으로 부주의 화재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 담배공초 38건(35.8%), 음식물조리 34건(32.1%), 회원방치, 용접 등, 쓰레기소각, 가연물 근접방치 각각 6건(5.7%)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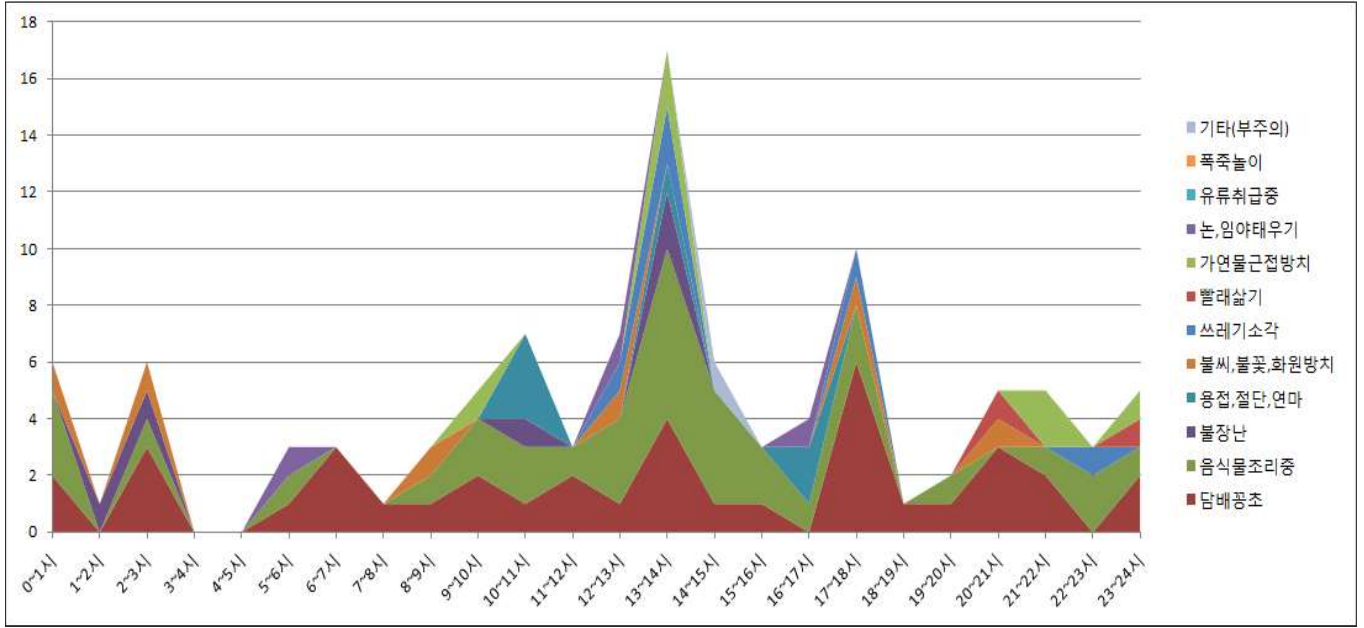
- 장소별로 살펴보면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에서의 부주의 화재는 전체 106건중 54건으로 5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주거시설 54건(50.9%), 임야 및 야외(도로 포함) 21건(19.8%), 생활서비스 10건(9.4%), 산업시설 8건(7.5%) 순으로 발생

- 2016년 발생한 54건의 주거시설 부주의 화재 중 공동주택이 41건(75.9%), 단독주택 12건(22.2%), 기타주택 1건(1.8%)이 발생하였으며,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26건(48.1%)으로 군포시 아파트 주거율보다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군포시 관내 총 183개 단지, 884동, 67,827세대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전체 세대수(106,771 세대) 대비 63.5%가 아파트에 거주

-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54건의 부주의 화재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40대부터 70대까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대 2명(3.9%), 30대 5명(9.8%), 40대 11명(21.6%), 50대 9명(17.6%), 60대 10명(19.6%), 70대 9명(17.6%), 80대 이상 6명(11.8%), 미상 2명(3.9%)

- 부주의 화재를 발화시간대 별로 살펴보면 점심식사 후 식곤증이 오는 13~14시에 17건(16.0%)이 가장 높았고, 음식물 조리중 부주의 또한 13~14시가 가장 높았지만, 담배꽂초는 저녁식사 전인 17~18시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13~14시 17건(16.0%), 17~18시 10건(9.4%), 10~11시 및 12~13시 각각 7건(6.6%), 0~1시, 2~3시, 14~15시 각각 6건(5.7%)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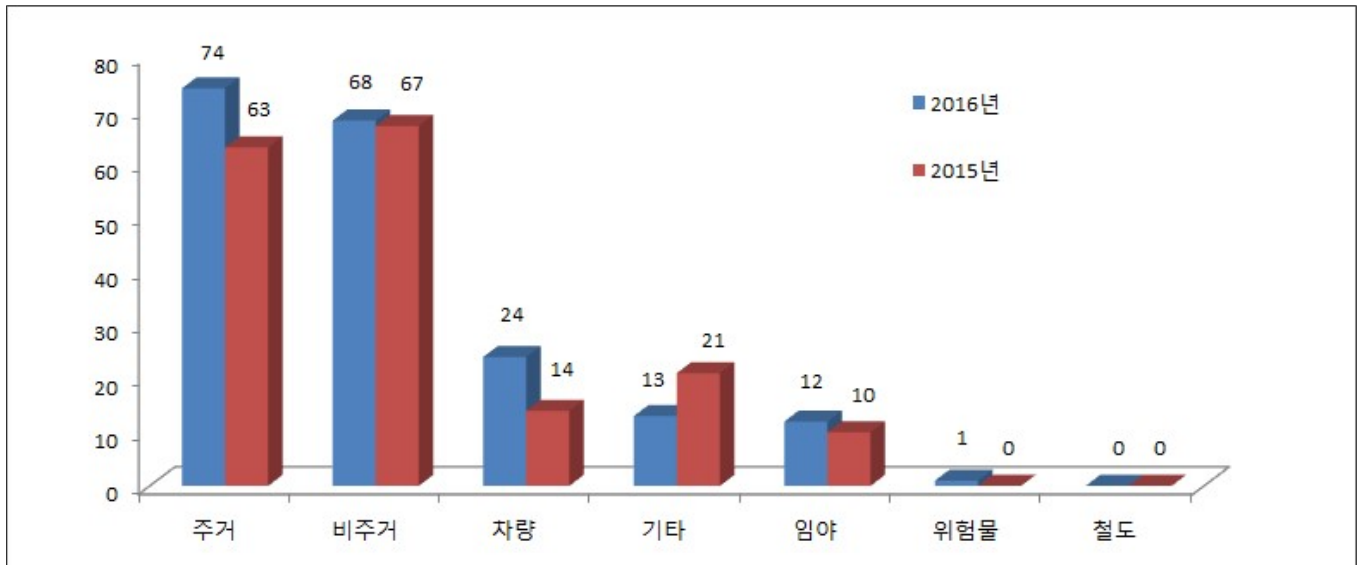
시간대별 부주의화재 발생 현황



계	담배 공초	음식물 조리중	불장난	용접, 절단, 연마	불씨, 불꽃, 화원방치	쓰레기 소각	빨래 삶기	가연물 근접방치	논,임야 태우기	유류 취급중	폭죽놀이	기타 (부주의)
합계	106	38	34	5	6	6	5	2	6	3		1
0~1시	6	2	3		1							
1~2시	1		1									
2~3시	6	3	1	1	1							
3~4시												
4~5시												
5~6시	3	1	1						1			
6~7시	3	3										
7~8시	1	1										
8~9시	3	1	1		1							
9~10시	5	2	2					1				
10~11시	7	1	2	1	3							
11~12시	3	2	1									
12~13시	7	1	3		1	1			1			
13~14시	17	4	6	2	1	2		2				
14~15시	6	1	4									1
15~16시	3	1	2									
16~17시	4		1		2				1			
17~18시	10	6	2		1	1						
18~19시	1	1										
19~20시	2	1	1									
20~21시	5	3			1		1					
21~22시	5	2	1					2				
22~23시	3		2			1						
23~24시	5	2	1				1	1				

4. 화재 장소별

(단위 : 건)



연도별	구분	계	주거	비주거	차량	기타	임야	위험물. 가스제조소등	철도선박. 항공기등
	2016		192	74	68	24	13	12	1
2015		175	63	67	14	21	10	0	0
전년 대비	건수	17	11	1	10	△8	2	1	0
	증감(%)	9.7	17.5	1.5	71.4	△38.1	20.0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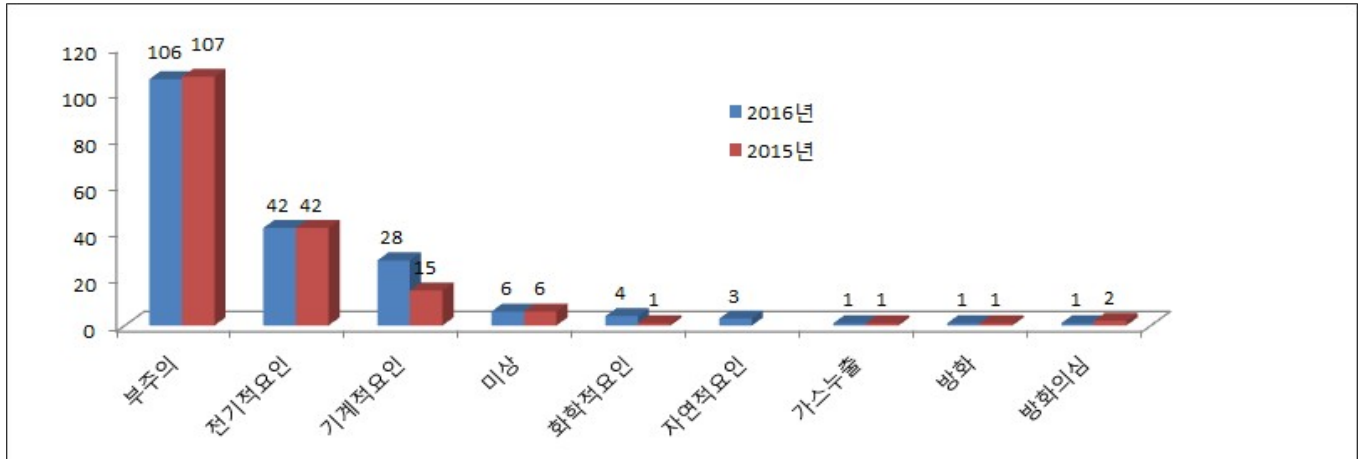
(비주거 : 교육시설, 산업시설, 생활서비스, 의료·복지시설, 판매·업무시설, 집합 시설, 기타서비스 시설 등)

○ 장소별 발생빈도는 주거 74건(38.5%), 비주거 68건(35.4%), 차량 24건(12.5%), 기타 13건(6.8%), 임야 12건(6.3%) 등 순으로 발생하였고, 비주거 시설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업시설 및 생활서비스가 각각 24건, 판매·업무 시설 11건, 기타서비스 6건, 의료·복지시설 2건 등 발생함.

○ 전년도 대비 차량의 증가율(71.4%)이 컸고, 기타화재는 감소(△38.1%) 하였으며, 주거 및 비주거 등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함.

5. 발화 요인별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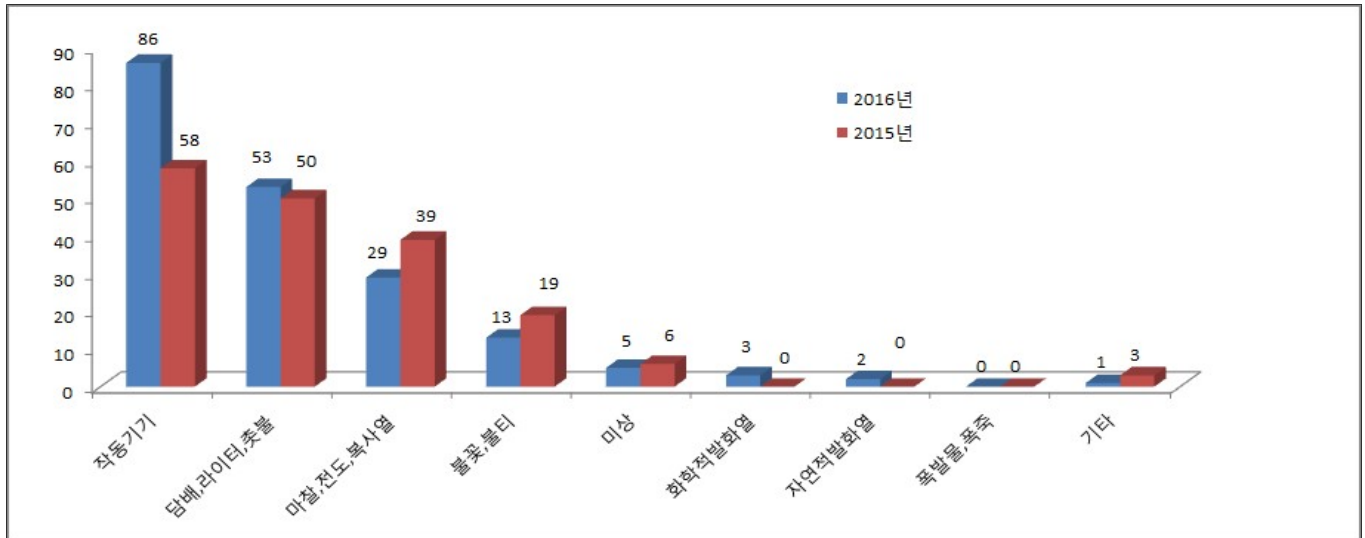


연도별	구분	계	부주의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미상	화학적 요인	자연적 요인	가스 누출	방화	방화 의심	기타
	2016		192	106	42	28	6	4	3	1	1	1
2015		175	107	42	15	6	1	0	1	1	2	0
전년 대비	건수	17	△1	0	13	0	3	3	0	0	△1	0
	증감(%)	9.7	0.9	0	86.7	0.0	300	-	0	0	△50.0	0

- 발화요인별 발생빈도는 부주의 106건(55.2%), 전기적요인 42건(21.9%), 기계적요인 28건(14.6%), 미상 6건(3.1%), 화학적요인 4건(2.1%), 자연적요인 3건(1.6%) 순으로 발생함.
- 2015년과 비교하여 기계적요인이 13건(86.7%)증가 하였고, 화학적요인이 3건(300%)증가하였으나 발생건수가 작아 큰 의미는 없으며, 부주의 및 전기적요인이 전년도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증가율이 높은 기계적요인은 차량이 13건(46.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산업시설 및 생활서비스 각각 4건(14.3%), 주거 3건(10.7%), 순으로 나타남.
 - 2015년도 기계적요인(15건) : 차량 7건(46.7%), 산업시설 6건(40%), 교육 및 판매 시설 각각 1건(6.7%)
 - 2016년도 기계적요인(28건) : 차량 13건(46.2%), 산업시설 및 생활서비스 각각 4건(14.3%), 주거시설 및 기타시설 각각 3건(10.7%), 의료·복지시설 1건(3.6%) 발생

6. 발화 열원별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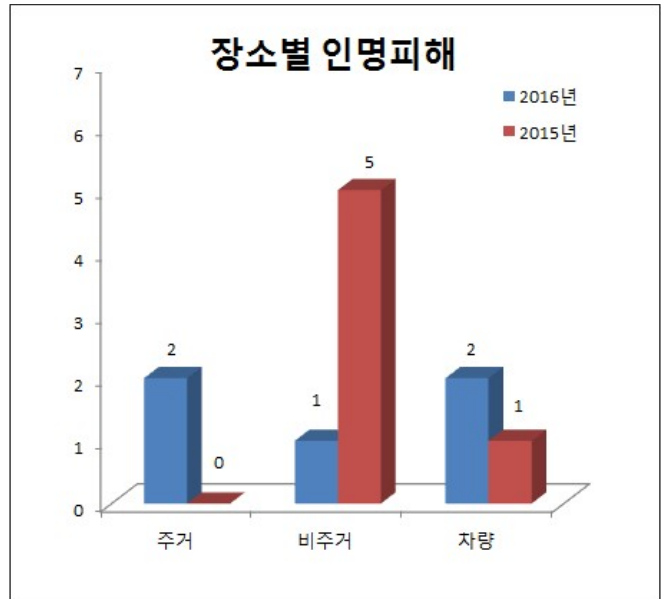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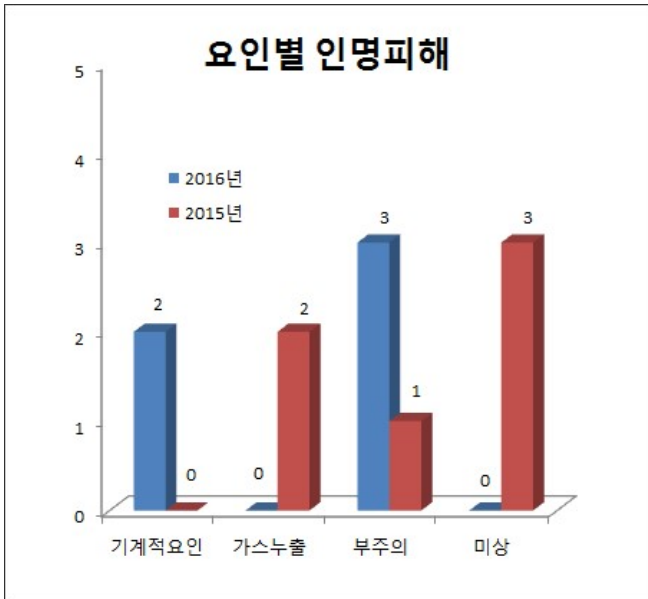
연도별	구분	계	작동기기	담배, 라이터, 촛불	마찰, 전도, 복사열	불꽃, 볼티	미상	화학적발화열	자연적발화열	폭발물, 폭죽	기타
	2016		192	86	53	29	13	5	3	2	0
2015		175	58	50	39	19	6	0	0	0	3
전년대비	건수	17	28	3	△10	△6	△1	3	2	0	△2
	증감(%)	9.7%	48.3%	6.0%	△25.6%	△31.6%	△16.7%	-	-	0	△66.7%

○ 발화열원별 발생빈도는 전기 및 기계적 요인이 주원인인 작동기기가 86건(44.8%)으로 가장 큰 빈도를 보였으며, 담배/라이터/촛불이 53건(27.6%), 마찰/전도/복사열 29건(15.1%), 불꽃/볼티 19건(10.9%) 순으로 발생함.

○ 2015년과 비교하여 작동기기 28건(48.3%) 증가하고, 담배/라이터/촛불은 3건(6.0%)이 증가하였으며, 마찰/전도/복사열 10건(△25.6%)감소, 불꽃/볼티 6건(△3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7. 인명피해 분석 - 발화 요인 및 장소별

(단위 : 명)



연도별	구분	계	전기적	기계적	가스	화학적	교통	부주의	기타	자연적	방화	방화	미상
			요인	요인	누출	요인	사고		실화	요인		의심	
2016		5	0	2	0	0	0	3	0	0	0	0	0
2015		6	0	0	2	0	0	1	0	0	0	0	3
전년 대비	명수	△1	0	2	△2	0	0	△2	0	0	0	0	△3
	증감(%)	△16.7	0	-	△100.0	0	0	△200.0	0	0	0	0	△100.0

연도별	구분	계	주거	비주거	차량	위험물, 가스제조소등	철도선박, 항공기등	임야	기타
			사망/부상	사망/부상	사망/부상	사망/부상			
2016		5	2	1	2				
	사망/부상	0 / 5	0/2	0/1	0/2				
2015		6		5	1				
	사망/부상	0 / 6		0/5	0/1				
전년 대비	명수	△1	2	△4	1				
	증감(%)	△16.7	-	△80.0	100.0				

○ 인명피해를 발화요인별로 분석해 보면 사망자 없이 총 5명의 부상자가 기계적요인 1건(2명), 부주의 2건(3명)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1명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16.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2013년도부터 4년 연속 화재로 인한 사망자 미발생

○ 전년도 대비 인명피해는 경기도 201명 감소(△20.8%), 사망은 전년도와 동일, 부상 201명 감소(△22.9%)했고, 전국은 69명 감소(△3.3%), 사망 53명 증가(20.9%), 부상 122명 감소(△6.6%) 하였음.

※ 2016년 전국 인명피해 2,024명(사망 306, 부상 1,718), 경기도 764명(사망 89, 부상 675)

○ 우리시 관내 인명피해 발생건수가 1건(16.7%) 감소하였지만, 전년도에 비거주 5명(공장3, 모텔2), 차량 1명이 발생하였지만, 2016년도는 거주 2명, 비거주 1명, 차량 2명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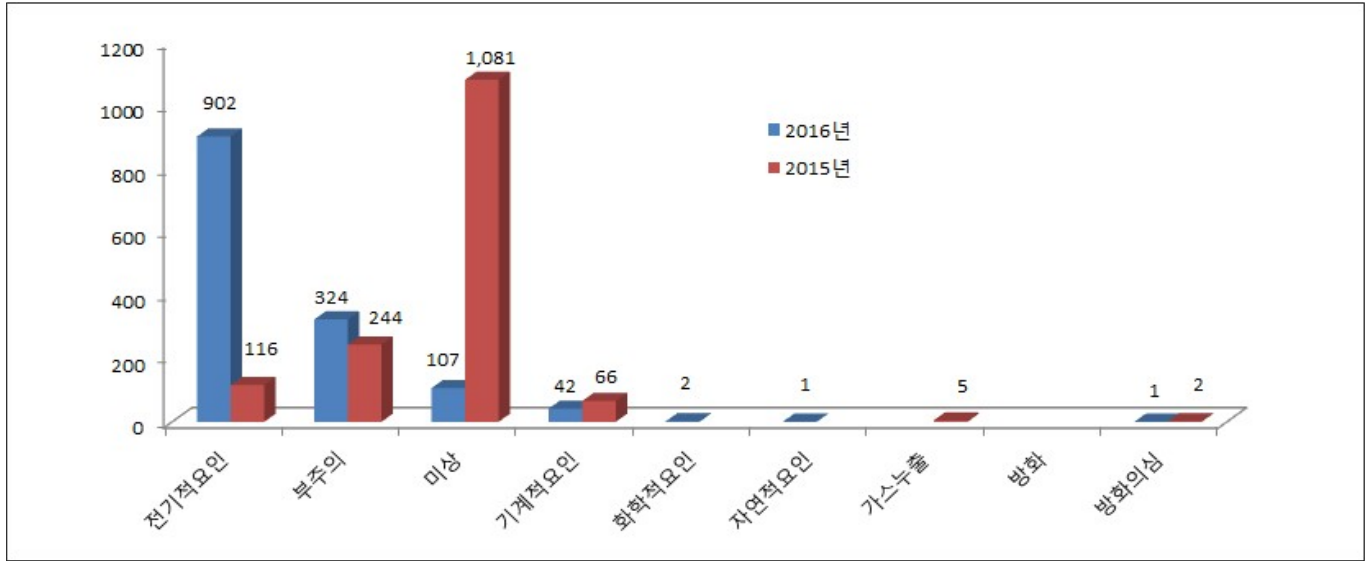
○ 발화 장소별 인명피해 현황은 아파트(2명), 신축공사장(1명), 자동차(2명)에서 발생하였는데, 아파트와 자동차에서 발생한 4명은 모두 화재를 자체 진화 시도중에 피해가 발생했으며,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1명은 음주상태에서 화기취급중 부주의로 발생하였음.

인명피해 발생 현황

순	발생 일시	발생 장소	원인	피해인원	비고
1	2016.01.21. 13:36	군포시 당정동	기계적 요인	2명	차량
2	2016.02.05. 14:21	군포시 산본동	부주의	1명	신축공사장
3	2016.02.26. 21:36	군포시 산본동	부주의	2명	아파트

8. 재산피해 분석 - 발화 요인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계	전기적 요인	부주의	미상	기계적 요인	화학적 요인	자연적 요인	가스 누출	방화	방화 의심
2016		1,379	902	324	107	42	2	1			1
2015		1,514	116	244	1,081	66			5		2
전년 대비	금액	△135	786	80	△974	△24	2	1	-5		△1
	증감(%)	△8.9	677.6%	32.8%	△90.1	△36.4	-	-	100.0	0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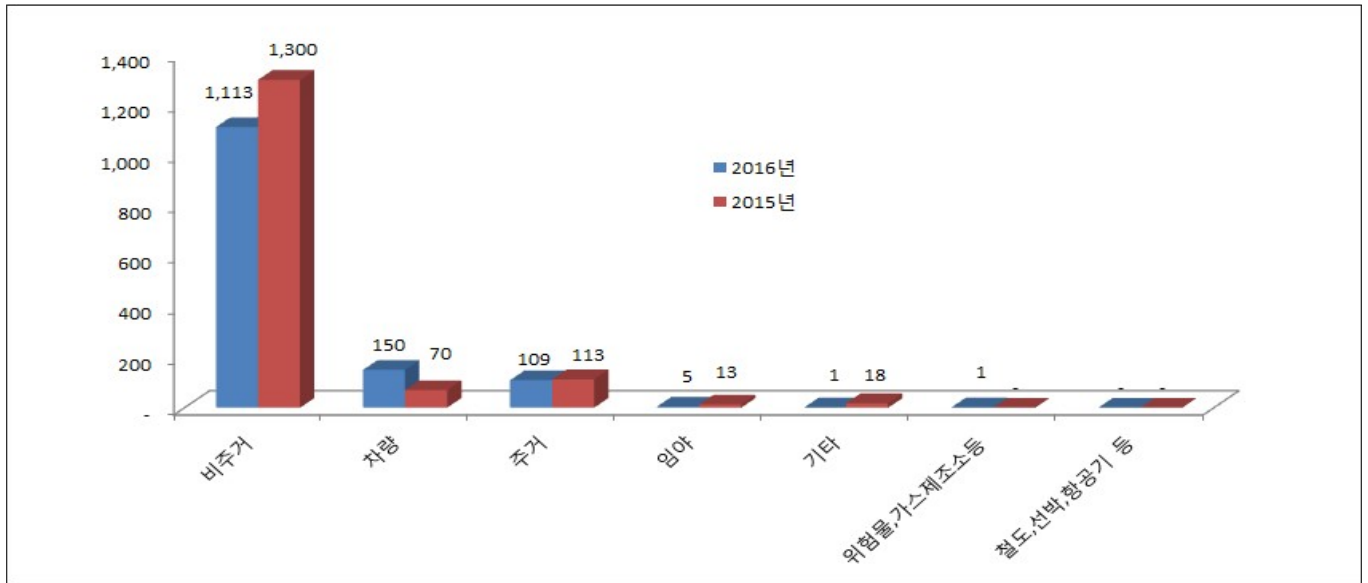
○ 발화요인별 재산피해는 전기적요인이 786백만원(677%) 증가하였고, 부주의는 80백만원(32.8%) 증가, 원인미상 974백만원(△90.1%) 감소하고, 기계적요인 24백만원(35.4%)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기적요인 902백만원(65.4%), 부주의 324백만원(23.5%), 원인미상 107백만원(7.8%), 기계적요인 42백만원(3.0%), 화학적요인 2백만원(0.2%), 자연적요인 및 방화의심 1백만원(0.1%) 순으로 발생.

○ 2016년도 화재건수는 증가하였으나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고, 광역화재 조사 및 화재조사 전문위원과 합동조사를 통한 원인규명 노력이 원인미상 화재는 감소하고 전기적요인이 증가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9. 재산피해 분석 - 발화 장소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계	비주거	차량	주거	임야	기타	위험물, 가스제조소 등	철도, 선박, 항공기 등
		2016	1,379	1,113	150	109	5	1	1
2015		1,514	1,300	70	113	13	18	0	0
전년 대비	금액	△135	△187	70	△4	-8	△17	1	0
	증감(%)	△8.9	△14.4	114.3	△3.5	△61.5	△94.4	-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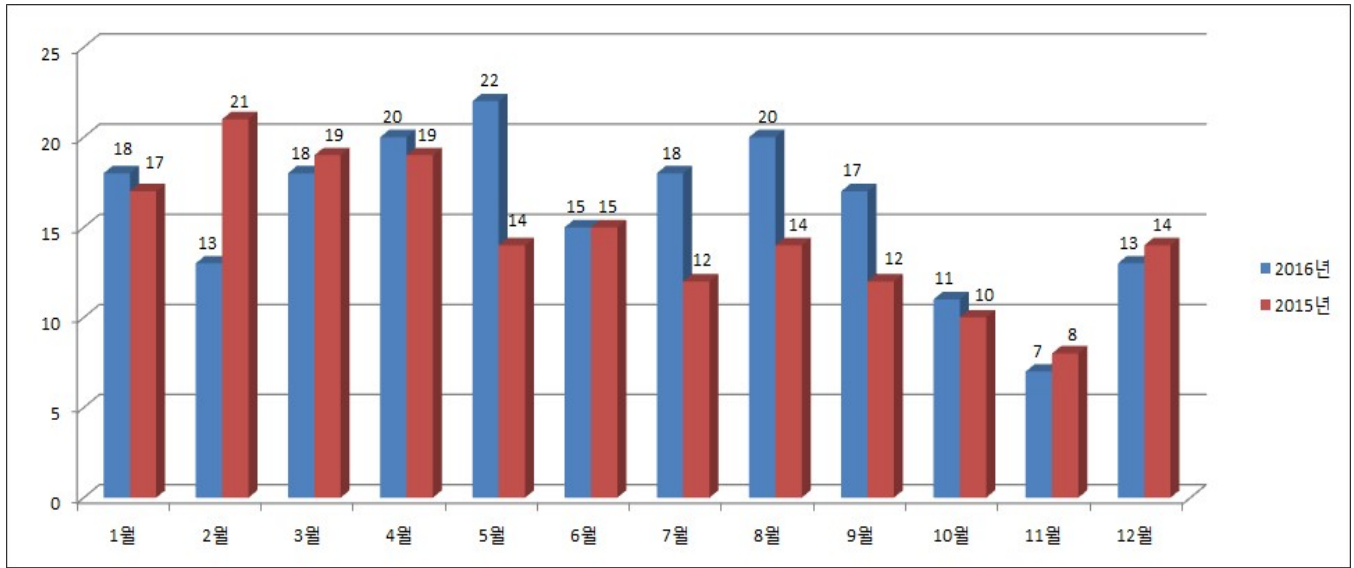
○ 발화 장소별 재산피해는 공장 등의 비주거에서 발생한 화재가 소폭 감소하긴 하였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비주거 1,113백만원(80.7%), 차량 150백만원(10.9%), 주거 1093백만원(7.9%), 임야 5백만원(0.4%), 기타 및 위험물 등 1백만원(0.1%) 순

○ 2016년도는 차량화재의 피해액이 주택화재의 피해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차량화재의 발생건수가 2015년에 비해 10건 (71.4%) 더 발생하였고, 고액차량(BMW)의 화재(2016.7.28. 01:05경) 및 차량 화재로부터 인접가연물(방음벽 등) 연소확대로 피해가 가중된 것에 기인하여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10. 월별 화재현황

(단위 : 건)



연도별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		192	18	13	18	20	22	15	18	20	17	11	7
2015		175	17	21	19	19	14	15	12	14	12	10	8	14
전년 대비	건수	17	1	△8	△1	1	8	0	6	6	5	1	△1	△1
	증감(%)	9.7	5.9	△38.1	△5.3	5.3	57.1	0	50.0	42.9	44.7	10.0	△12.5	△7.1

○ 월별 화재발생빈도와 계절적 영향의 상관관계는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해빙기인 3~5월에 다소 많은 화재가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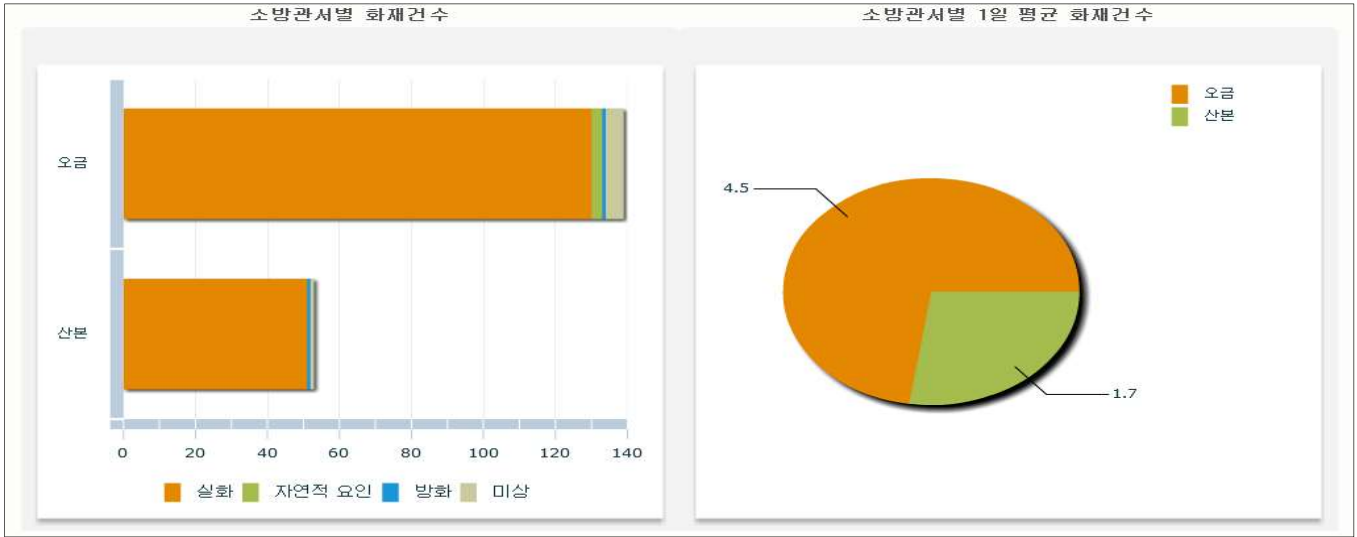
- 5월 22건(11.5%), 4,8월 각각 20건(10.9%), 1월 17건(9.7%), 6월 15건(8.6%), 5,8,12월이 각각 14건(8%) 순으로 발생

○ 계절적으로도 살펴보면 2015년 및 2016년 모두 가을보다는 봄철에 더 많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 봄철 52건(31.3%), 여름철 53건(27.6%), 가을철 35건(18.2%), 겨울철 44건(22.9%)

11. 안전센터별 화재 발생현황

(단위 : 건/명/백만원)



구분	계	발생비율(%)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실면적(수, m²)				
		실화	자연적 요인	방화	미상	실화	자연적 요인	방화	미상	계	부동산	동산	동수	면적(m²)			
합계	192	181	3	2	6	94.3	1.6	1.0	3.1	5	0	5	1,379,129	334,808	1,044,321	26	2,541
오금119 안전센터	139	130	3	1	5	93.5	2.2	0.7	3.6	4	0	4	1,230,867	262,567	968,300	18	2,374
산본119 안전센터	53	51	0	1	1	96.2	0	1.9	1.9	1	0	1	148,262	72,241	76,021	8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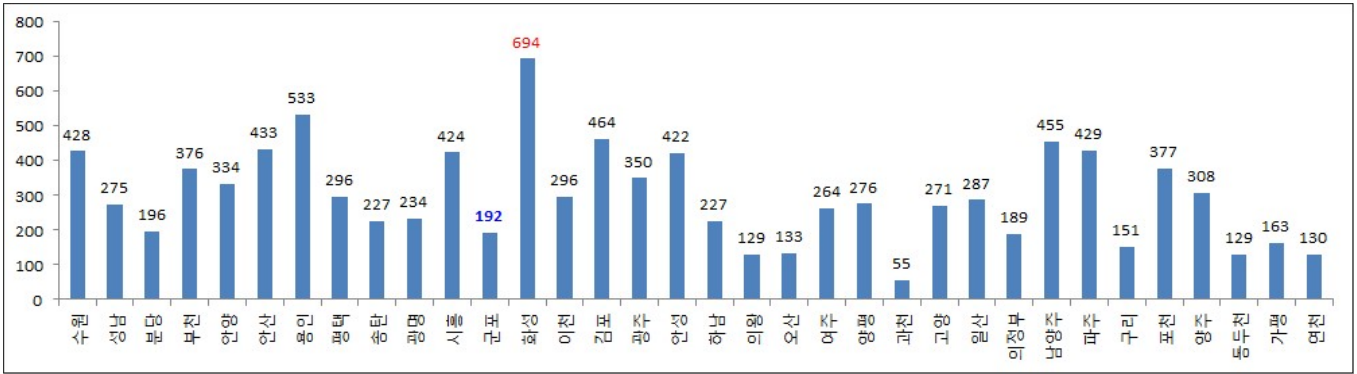
○ 119안전센터별 발생건수는 오금 139건(72.4%), 산본 53건(27.6%)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오금센터 1건(0.7%)증가, 산본센터 16건(△43.2%)이 증가함.

○ 119안전센터별 재산피해는 오금 1,231백만원(89.2%), 산본 148백만원(10.8%)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2015년 대비 오금 254백만원(△17.1%) 감소, 산본 118백만원(395.6%) 증가함.

- 오금센터는 전년도와 비슷한 화재건수를 보여 소폭 감소하였으나, 산본센터의 경우 화재가 16건(43.2%) 증가와 맞물려 재산피해가 크게 증가함

○ 센터별 화재 비중의 차이는 산본은 관할면적이 작고 주로 주거지역 중 고층 아파트가 많으며, 오금은 관할면적이 상대적으로 크고 비주거지역 및 공장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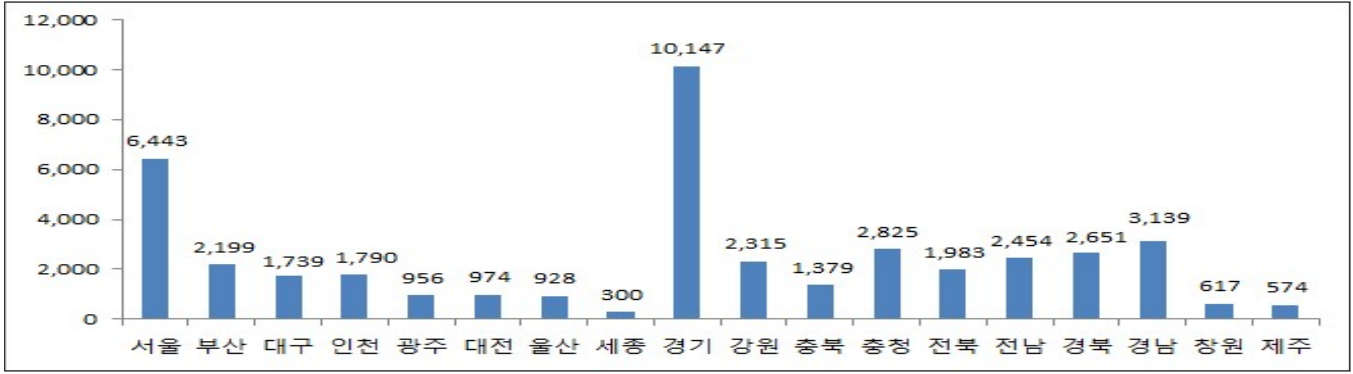
12. 소방관서별 화재 통계



관서명	화재(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관서명	화재(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합계	10,147	580	70	510	184,834,837	하남	227	21	4	17	1,666,924
수원	428	39	2	37	4,698,016	의왕	129	2	0	2	729,862
성남	275	11	3	8	2,289,647	오산	133	7	1	6	578,783
분당	196	8	2	6	1,020,993	여주	264	13	4	9	1,792,419
부천	376	28	3	25	2,788,731	양평	276	5	1	4	1,230,126
안양	334	23	0	23	462,624	과천	55	5	0	5	997,405
안산	433	27	7	20	6,507,177	고양	271	29	1	28	2,095,485
용인	533	28	2	26	6,125,357	일산	287	34	0	34	18,052,731
평택	296	14	1	13	3,043,957	의정부	189	15	1	14	1,312,428
송탄	227	16	0	16	1,977,792	남양주	455	25	5	20	11,016,768
광명	234	6	1	5	1,640,764	파주	429	23	2	21	10,148,908
시흥	424	24	2	22	7,493,185	구리	151	3	3	0	599,549
군포	192	5	0	5	1,379,129	포천	377	16	3	13	6,218,450
화성	694	47	5	42	34,812,001	양주	308	17	1	16	14,442,613
이천	296	14	1	13	13,212,027	동두천	129	6	0	6	1,277,546
김포	464	27	7	20	14,524,979	가평	163	8	1	7	917,714
광주	350	13	3	10	5,873,192	연천	130	8	2	6	1,479,008
안성	422	13	2	11	2,428,547						

- 화재발생 건수는 **화성**, 용인, 김포, 남양주, 안산, 파주, 수원, 시흥, 안성, 포천, 부천, 광주, 안양, 양주 등의 순으로 발생함.
- 재산피해는 **화성**, 일산, 김포, 양주, 이천, 남양주, 파주, 시흥, 안산, 포천, 용인, 광주, 수원, 평택 등의 순으로 피해가 발생함.
- 군포 화재발생건수는 전년도 27위에서 2016년 **26위**, 재산피해는 전년도 27위에서 2016년 **24위**를 차지함.

13. 시도별 화재 통계



구분	2016년					2015년					증감률 (%)				
	건수	인명피해			재산 피해 (백만원)	건수	인명피해			재산 피해 (백만원)	건수	인명피해			재산 피해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합계	43,413	2,024	306	1,718	369,725	44,435	2,093	253	1,840	433,166	-2.3	-3.3	20.9	-6.6	-14.6
서울	6,443	276	40	236	14,144	5,921	249	27	222	14,337	8.8	10.8	48.1	6.3	-1.3
부산	2,199	145	17	128	6,646	1,973	101	17	84	17,741	11.5	43.6	0.0	52.4	-62.5
대구	1,739	94	11	83	6,389	1,817	82	7	75	7,963	-4.3	14.6	57.1	10.7	-19.8
인천	1,790	104	10	94	16,573	1,875	105	16	89	16,306	-4.5	-1.0	-37.5	5.6	1.6
광주	956	30	7	23	3,775	1,006	20	3	17	3,023	-5.0	50.0	133.3	35.3	24.9
대전	974	47	7	40	3,702	1,254	47	3	44	3,249	-22.3	0.0	133.3	-9.1	13.9
울산	928	69	16	53	3,519	874	51	6	45	4,430	6.2	35.3	166.7	17.8	-20.6
세종	300	14	2	12	1,585	252	6	1	5	1,241	19.0	133.3	100.0	140.0	27.7
경기	10,147	580	70	510	184,835	10,333	673	63	610	240,338	-1.8	-13.8	11.1	-16.4	-23.1
강원	2,315	119	20	99	12,758	2,485	120	13	107	14,724	-6.8	-0.8	53.8	-7.5	-13.4
충북	1,379	50	12	38	13,912	1,373	69	18	51	13,509	0.4	-27.5	-33.3	-25.5	3.0
충청	2,825	58	12	46	20,560	3,031	65	17	48	17,282	-6.8	-10.8	-29.4	-4.2	19.0
전북	1,983	56	17	39	9,928	1,962	70	10	60	7,538	1.1	-20.0	70.0	-35.0	31.7
전남	2,454	110	21	89	15,448	2,647	115	11	104	19,520	-7.3	-4.3	90.9	-14.4	-20.9
경북	2,651	127	14	113	24,644	3,068	131	18	113	17,667	-13.6	-3.1	-22.2	0.0	39.5
경남	3,139	112	28	84	23,481	3,379	135	14	121	27,675	-7.1	-17.0	100.0	-30.6	-15.2
창원	617	18	1	17	2,388	581	23	4	19	2,305	6.2	-21.7	-75.0	-10.5	3.6
제주	574	15	1	14	5,438	604	31	5	26	4,320	-5.0	-51.6	-80.0	-46.2	25.9